

보 도 자 료

발 신	제7회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 (미디어시티 서울 2012)
담당자	정혜연 (Bella Jung) pr.mediacityseoul@gmail.com T. 070-4473-8858, M.010-4277-9997 이서우 soulmuses@naver.com T. 070-8250-5007, M.010-9172-9942
총 매수	총6매
보도협조일	받는 즉시 배포 부탁드립니다.

베일 벗은 제7회 서울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너에게 주문을 건다



<서울시립미술관 입구>

서울을 대표하는 비엔날레인 서울 국제 미디어아트 비엔날레가 9월 11일 베일을 벗었다. ‘Spell(주문)’이라는 화두에서 시작한 이번 비엔날레에는 20개국 미디어아트 작가 49명이 참여해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였다. 전시는 11월 4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본관과 디지털미디어시티 홍보관에서 55일 동안 열리며 무료로 관람 할 수 있다. 유진상 총감독은 이번전시를 통해 ‘현대인의 삶에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다양한 소통방식과 정보환경을 예술적, 사회적, 인문학적 관점에서 재해석 했다'라고 전시 기획의 주제를 밝혔다.

또한 일본의 저명한 미디어아트 비평가이자 큐레이터인 유키코 시카타, '네덜란드 미디어아트 인스티튜트'의 디렉터 올로프 반 빈든, 그리고 현재 미국 '제로원 비엔날레'의 공동 큐레이터로 활동 중인 최두은 전 아트센터 나비 큐레이터가 공동 큐레이터로 참여하여 전시의 주제에 깊이를 더하고 있다.



<서울시립미술관 로비 전경>

개막식 Spell on You 너에게 주문을 건다

개막식 전부터 시립미술관본관 입구에선 홍성민 작가의 내셔널 지오그래픽 퍼포먼스가 진행 중이었다. 미술관 곳곳에 늘어져 있는 12마리의 북청사자는 머리 흔들기, 꼬리 흔들기, 뒤집기 등 사자의 평범한 일상을 표현한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으로 대표되는 동물 다큐멘터리에서 사자는 늘 먹이를 사냥하는 공격적이거나 활동적인 모습으로 묘사된다. 그런데 사실 사자의 시간이란 95%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무그늘 밑에 늘어져 있는 모습이다. 작업을 구상할 당시 파업 중이었던 MBC 방송국 직원들을 참조하기도 한 이 작품은 동물다큐멘터리-북청사자놀이-사자되기-태업을 뫼비우스의 띠처럼 연결한다.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공식 퍼포먼스 레퍼토리들 가운데 하나인 사자탈춤의 사자들이 태업을 벌이는 노동자들처럼 전시장 앞에 누워있는 상황을 연출한 이 작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사자 코스튬 안에서 일당을 받고 일하는 연기자들의 퍼포먼스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홍성민 내셔널 지오그래픽 퍼포먼스 장면>

국내외 미술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개막식은 작가 '아텔 압데세메드'의 작품인 '기억' 앞에서 유진상 총감독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서울시립미술관 미디어아트의 다양성과



대중성의 확장에 중심이 될 이번 전시를 축하하는 김홍희 관장의 인사말씀으로 개막식이 진행되었다.



<서울시립미술관 김홍희 관장 인사말>



< 협력 큐레이터와 유진상 총감독 >



<개막식 로비 전경>

유진상 총감독은 층마다 스토리가 연결되는 소주제를 설정해 전시의 구성력을 높였으며 관객과 밀접한 상호 소통을 하고자 한다. 관객이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설치가 되었으며, 미디어아트를 어렵게 생각하는 관객들을 위해 각각의 작품 옆에 작품 설명을 부착해 놓았다.

1층 미디어 극장 : 모두 다 잘 될거야

아텔 압테세메드의 <기억>에서 시작되는 1층의 전시는 갈등과 대립, 위기와 도전, 관음증과 무작위성으로 점철된 미디어의 극적 공간들을 보여준다. 비평적 인 동시에 시적인 시각에서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해석한 이 작품들은 기술에 각인된 수많은 도구적 주문들을 예술이 어떻게 풀어내는지 보여주고 있다.

2층 천 개의 주문들 : 알려지지 않은 친구들의 윤회에 대하여

트위터와 페이스북, 유튜브 등으로 대표되는 소셜 네트워크 기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정보와 여론의 유통은 가속화된 민주주의와 덧없는 경제체제를 만들어냈다. 끊임없이 명멸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동체와 네트워크들은 미디어 아트가 다루는 흥미로운 테마이기도 하다.

3층 혼선 : 보이지 않지만 ‘안녕’

관객들은 미디어아트가 생산하는 예술의 동시대성이 기술적 과시뿐만 아닌 깊은 공감의 차원에서 생성되는 것이 라는 점을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의 비-가시성은 우리의 삶을 둘러싸는 환경이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술의 표면밖에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깊은 불안과 소외를 만들어내는 기술 (technique)이다.

디지털 미디어시티 홍보관

구름의 무늬들 : 세계 감정으로의 접근 데이터 수집 및 분석 기술은 산업 및 군사기술로부터 출발하여 개인들의 일상적인 대화와 감정적 교류의 영역 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시킨다. 한편 으로는 소통과 연결을 원활하게 하고 교류의 범위를 확장시킨다는 이점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과 권력의 지배기술이 사적인 영역까지 파고든 다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전시장 관람 모습>

위치	참여 작가
시립미술관 1F (17팀)	Adel Abdessemed, Zbyněk Baladrán, Jenny Holzer, Akram Zaatari Nathaniel Mellors, Yeondoo Jung, Till Nowak, David Claerbout Seiko Mikami, Dennis Feser, dNA(doubleNegatives Architecture) Robert Lepage, Sarah Kenderdine, Jeffrey Shaw Jeong Han Kim & BiKE Lab., Donghee Koo, HONG Sungmin Jens Wunderling, So Kanno & Takahiro Yamaguchi
시립미술관 2F (12팀)	David Bowen, Dominic Gagnon, Nina Fischer & Maroan El Sani Ryota Kuwakubo, NMARA(Lee Zune, Kenny Kyungmi Kim) Hong Seung-Hye, Bang&Lee, Floris Kaayk, Gordan Savičić & Bengt Sjölén, everyware, Exonemo, Haque Design+Research
시립미술관 3F (12팀)	Ryoji Ikeda, Jae-eunChoi , Zimoun, Marina Abramović, HYBE Daito Manabe & Motoi Ishibashi, Ji-Hyun Yoon & Taiyun Kim Romy Achituv, Maurice Benayoun, Robert Overweg, JK Keller, blablabLAB
DMC (8팀)	Jon Satrom, Eric Maillet, Kim, Won Hwa, Joon Y. Moon Kichul Kim, Aaron Koblin & Chris Milk, Jonathan Harris & Sep Kamvar Alessandro Ludovico & Paolo Cirio

[별첨] 미디어시티 서울 2012 프로그램

	행사명		기간	장소
프로그램	외부전시상영	도시에 주문을 건다	9월 11일 (화) - 11월 4일 (일)	서울스퀘어, DMC미디어보드(씨제이이엔엠, 엘지씨엔에스, SBS 프리즘타워) 한빛 거리, 한빛 미디어파크
		개막공연	9월 15일 오후 7시-8시	서울역 갤러리아 쿡코스 앞 광장
	DMC 10주년 국제 심포지움 DMC의 미래 : 미디어 테크놀로지, 도시, 그리고 문화		9월 13일 (목) 오후 2시-5시30분	DMC 누리꿈스퀘어 3층 국제회의장
	2012 Davinci Idea 내일의 전야(前夜) : 산업 그리고 미디어아트		9월 10일 (월) - 10월 9일 (화)	금천예술공장

미디어아트 워크숍		9월 12일 (수) 오후 1시-5시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 (본관 지하 1층)
난지아트쇼 :	Vill: Phantasma-Korea	9월 18일 (화) - 9월 30일 (일)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난지갤러리
	IX: Hyper text	10월 4일 (목) - 10월 14일 (일)	
SeMA 체험교육프로그램 미술관 데이트 - 전시장에서 와글와글		9월 15일(토) - 11월 3일(토) 오전 10시 - 12시 매주 토요일(총8회)	서울시립미술관 본관
주한독일문화원 패널디스커션 재난과 예술 : 새로운 시각?		9월 14일 (금) 오후 2시-4시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41, EU 홀 서울스퀘어 5F, 주한독일문화원
YCAM 워크숍 “소리의 주변을 걷다”		9월 16일 (일) 오후 1시-4시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 (본관 지하 1층)
특별 프로그램	왕을 해킹하다 : 디지털 시대의 수평적 경계	10월 5일(금) 오후 2시	서울시립미술관 세마홀 (본관 지하 1층)
	뮤지엄 나이트 라이브 코딩 쇼	9월 18일(화) 10월 16일 (화) 오후 8시-9시 총2회	서울시립미술관 1층 로비

웹하드 다운로드 정보

www.webhard.co.kr

ID: mediacity / PW: 2012

GUEST폴더